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2)’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2)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
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
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눅8:3
1-39)

³¹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
시기를 간구하더니 ³²마침 그곳
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
니 이에 허락하시니 ³³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
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³⁴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³⁵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
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
거늘 ³⁶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
에게 이르매 ³⁷거라사인의 땅 근
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
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
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
실새 ³⁸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
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³⁹집으로

이쯤에서 계속 꼭 좀 말씀드려
야 할 게 이 경우가 어떻게 그
런 결합, 즉 겉 사람 혹은 자연
적 인간과 속 사람 혹은 영적
인간 간 결합의 경우인지 하는
것입니다. 겉 사람 혹은 자연적
인간의 다스림은 가장 어릴 때
부터이며, 이때는 어떤 속 사람
혹은 영적 인간이라는 게 있는
지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때입
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개
혁, 곧 거듭남이 진행되며, 그래
서 자연적 혹은 겉, 외적인 상태
에서 영적 혹은 속, 내적 상태가
되기 시작할 때, 자연적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저항입
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 되면 자
연적 인간은 노예 상태가 된다
배웠기 때문인데요, 즉 친했던
모든 것과 함께 모든 욕망이 뿌
리째 뽑힐 것이라고 배운 것이
며, 그 결과 자연적 인간은 달랑
혼자 남게 되면서 생각하기를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2)’

아, 이런 식으로 나는 철저히 사라지게 되겠구나 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계 전부인 걸로만 알았기 때문이고, 한편, 영적인 것 안에 측량할 수도,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연적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는 물러나게, 즉 움츠리게 되며,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는 절대 속하지 말아야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두려움’의 의미입니다. (AC.5647) *Here in few words it must be told in advance how the case is with this conjunction, that is, the conjunction of the external or natural man with the internal or spiritual. The external or natural man reigns from life's earliest age, and knows not that there is an internal or spiritual man. When therefore the man is being reformed and from being natural or external is beginning to become spiritual or internal, the natural at first rebels, for it is taught that the natural man is to be subjugated, that is, that all its lusts together with the th*

ings that confirm them are to be rooted out. Hence when the natural man is left to itself, it thinks that in this way it would utterly perish; for it knows no otherwise than that the natural is everything, and it is wholly ignorant that in the spiritual there are things immeasurable and unutterable; and when the natural man so thinks, it draws back and is not willing to be subjected to the spiritual. This is what is here meant by their "fear." (A C.5647)

이 내용은 스베덴보리의 저작인 ‘천국의 비밀’(Arcana Coelestia, 창세기, 출애굽기 속뜻 주석) 5647번 글에서 인용하였으며, 이 글은 창세기 43장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중,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And the men were afraid.)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2)’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라는 성에 도착했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어두었는데 자주 사슬을 끊고 귀신에게 끌려 광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뜻으로 사슬에 묶였다는 것은 이전의 악한 습관을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일인데 단호하게 끊지를 못하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악습을 알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에게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문에서 주님과 귀신 들린 자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³¹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 시기를 간구하더니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제발 무저

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주님께 애원합니다. 무저갱은 지옥에서도 가장 깊은 지옥을 말하는데, 거기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옥의 귀신들에게도 그곳이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573, 574번 글들을 보면, 악한 영들은 자신의 영적 성향에 따라 스스로 원해서 지옥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그곳의 삶은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지옥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배욕이 강해서 자신을 대우하지 않는 사람을 서로 증오하고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모와 싸움이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지옥 불의 고통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라고 하며, 마침 그곳에 있던 돼지 떼에게 들어가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32절입니다.

³²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주님께서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2)’

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돼지는 속뜻으로 세속적인 더러운 욕망을 뜻합니다. 따라서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은 귀신이 불순한 욕망을 가진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영적으로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돼지가 산에서 먹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산’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또는 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돼지가 산에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편으로는 물질과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진리와 선을 배우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선과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고,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들에게 돼지에게 들어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욕망에 빠진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³³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 떼가 호수로 내달아 모두 죽었습니다. 영적 의미로 호수는 바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그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모두 파괴하여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없고 거짓만 있으니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이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몰사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몰사했다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질식했다고 표현합니다. 질식했다는 것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선과 진리를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숨을 쉰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과 진리를 알고 모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은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어찌하여 그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2)’

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배우면서도 행하지 않고 마음 속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³⁴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돼지를 치던 자들이 누굴까요? 앞서 귀신 들려 물에 빠져 죽은 돼지들과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불결한 욕망을 좇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쾌락을 좇아 살면서 진리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악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지이며, 돼지를 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내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 남은 자, 또는 양심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으로 도망했다는 것은 이전에 진리

를 모독하는 삶으로부터 도망, 교리 가운데로 몸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으로 도망하여 알린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 안에서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성은 속뜻으로 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거나 반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서 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진리를 모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교리 가운데서 그동안의 일들을 반성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돼지 치는 자가 성으로 도망한 것은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³⁵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2)’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옷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의 발은 가장 낮은 등차의 진리인 말씀의 문자적인 진리를 뜻하고, 예수는 선으로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말씀의 문자적인 진리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선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십계명의 문자적인 의미 같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믿을 뿐 아니라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는 그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의 영어 성경의 표현은 ‘right’인데, 그것은 그가 의롭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그러한 모습은, 진리를 몰랐던 이방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진리를 통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³⁶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구원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에게는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있으며, 속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겉 사람은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 그러므로 겉 사람은 속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³⁷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그러자 37절, 그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진리로부터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좋아 주님께 나아왔지만, 선뜻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 떠나시기를 청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진리를 처음 대할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2)’

때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신앙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이를테면 자신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지식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식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진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과 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인간의 전통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대신 적당히 이려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진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요, 주님께 떠나가시기를 청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진리를 찾아왔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다시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끝으로 38절과 39절,

³⁸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³⁹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주님에 대해 말할 때,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 진리를 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사람들을 진리의 사도로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가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 나간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집은 사람의 의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쾌락을 좇

눅8:31-39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 (2)’

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쾌락을 구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좇는 마음은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쾌락을 좇지 말고, 대신 천국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기쁨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지극한 평화와 말할 수 없는, 자유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그러한 기쁨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모르지만 남은 자라고 하는 양심을 통해 진리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후자의 사람들로 부터 진리를 빼앗아 전자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산 아래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

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 자부하면 안 되고 주님을 의지, 끊임없이 자기 안의 귀신들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의 사도가 되어 각자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138:7)

아멘

원본

2019-02-03(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년 5월 10일(D4)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